

# 사랑과 고뇌와 憧憬의 나날들

## 젊은 날의 해방과 구원으로서의 책

鄭玄宗

연세대 국문과 교수 · 시인

사람의 계획과 일들이 욕망의 소산이 아닌 게 없고, 욕망이란 대체로 욕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욕망이 항상 분명한 동거나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우리가 '동경'이라는 말로 나타내는 마음의 어떤 지향은 비교적 뚜렷하지 않은 상태의 표현이다. '그리움'이라든지 '향수'같은 말들이 만나봤거나 가보았거나 살았었거나 하여간 이미 겪은 것에 대한 情調에 물들어 있는 것이라면, '동경'은 겪어보지 않은 것에 대한 지향에 많이 물들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말들에 공통되는 것은—'욕망'이 한결 가까운 것, 닿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말이라면—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것에 대한 지향이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든 책과 관련된 내 10대 후반의 어떤 욕망과 동경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하면서 일종의 준비체조 같은 걸 위에서 해본 셈인데, 청소년 시절의 욕망의 세목과 동경의 대상은 한두가지가 아니겠지만, 그중에서도 책과 연관되는 애깃거리가 있는 것으로 性에 대한 호기심과 고대희랍에 대한 동경이 있다.

성이라는 게 아주 자연스런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사춘기를 살고 있는 미성년에게 성에 대한 호기심은 사회적 금기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집은 천주교를 믿고 있었던 집안이어서 1주일엔 한번씩 고해성사를 하는 게 의무처럼 되어 있었으니 겹겹이 억압적인 환경에서 지내야 했었는데, 그러한 내 안팎의 억압으로부터 나를 해방한 책이 앙드레 지드의 「地上的 양식」(이휘영 역, 1959년 新太陽社)이었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뿜나다고 내가 조금 조숙한 편이었는데, 국민학교 3학년 무렵에 벌써 같은 반 사팔뜨기 여학생한테 연정을 느껴 그에만 보면 저 혼자 얼굴이 빨개지고 개하고 가까이 있으면 몸에서 열이

젊은 시절 헤아릴 수 없었던  
욕망과 동경의 대상 중  
유독 性에 대한 호기심과 희랍에  
대한 동경이 강했던 내게,  
지드의 소설과 그리스 신화는  
참으로 구원과 같은 것이었다.

나는 듯했으니 그러한 생애적인 성적 민감성이 어디로 갈리가 없었을 테지만, 비교적 수줍은 편이어서 연애라는 걸 처음 해본 게 대학 2학년 무렵인데, 그것도 여학생쪽에서 열렬했기 때문에 얼마동안 만났던 것이다. 어떻게 얘기의 초점은, 내 사춘기의 성이 중학교 때 고해성사를 하면서 “성당에 오다가 여학생을 쳐다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라고 고해를 할 정도로 죄의식에 물든 참담한 것이었고 그런만큼 마음으로 느끼는 억압도 큰 것이어서, 어느 겨울에는 부처님의 雪山修行 흉내를 내겠다고(지난 봄에 와다나베 쇼오코란 사람이 쓰고 法頂님이 번역한 「불타 석가모니」라는 책을 보니 거기엔 설산에서 고행했다는 말이 없었으나) 어느

무지무지하게 추운 날 정릉 골짜기에 있는 묘지에 가서 헤맬 지경이었으니 고3때의 「지상의 양식」의 발견은 참으로 구원과 같은 것이었다. 마침 옛날책이 남아 있길래 펴보니 여러군데 줄이 쳐져 있고, 또 여백에는 읽으면서 그때그때 떠오른 자기의 생각을 적어놓고 있다. 줄 쳐놓은 부분을 몇군데 소개한다.

과오 속에보다도 罰 속에 더많은 쾌감을 느끼며 나는 즐거이 나의 육체를 벌하였다. —그토록 단순히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자랑으로 여기어 도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보니 뒷부분은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없게 번역되어 있다—필자)

이단자들 중에서도 이단자이던 나는 동떨어진 의견들, 극단적 迂曲을 보이는 사상들, 색다른 사고들에 항상 마음이 끌렸다.

행동의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행동할 것. 선인가 악인가 개의하지 말고 사랑할 것. 나타나엘, 나는 그대에게 열정을 가르쳐 주리라.

그대의 눈에 비치는 것이 순간마다 새롭기를.

현자란 모든 것에 감탄하는 사람이다. 바닷가의 모래가 부드럽다는 것을 <읽기만>하여서는 만족할 수 없다. 나의 맨발이 그것을 느끼고 싶은 것이다.…… 먼저 감각을 통하여 얻은 지식이 아니면 나에게서는 소용이 없다.

(………)

그렇다. 입술 위에 떠오르는 모든 웃음을 나는 껌안아 입맞추고 싶었다. 뺨 위에 어리는 모든 피, 눈 속에 고이는 모든 눈물, 나는 그것을 마시고 싶었다. 나뭇가지가 나에게로 기울여주는 모든 과일을 씹어먹고 싶었다. 주막에 이를 때마다 굶주림이 나를 맞이해 주었다. 어느 샘물 앞에서나 갈증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샘물 앞에 설 적마다 다른 갈증들이— 나의 욕망들을 표현하기 위하여 또 다른 말들이 있었으면 한다.

걷고 싶은 욕망, 거기엔 길이 열리고 쉬고 싶은 욕망, 거기엔 응달이 부르며 깊은 물가에서는 헤엄치고 싶은 욕망 침대 위에서는 어디서든지 사랑하며 자고 싶은 욕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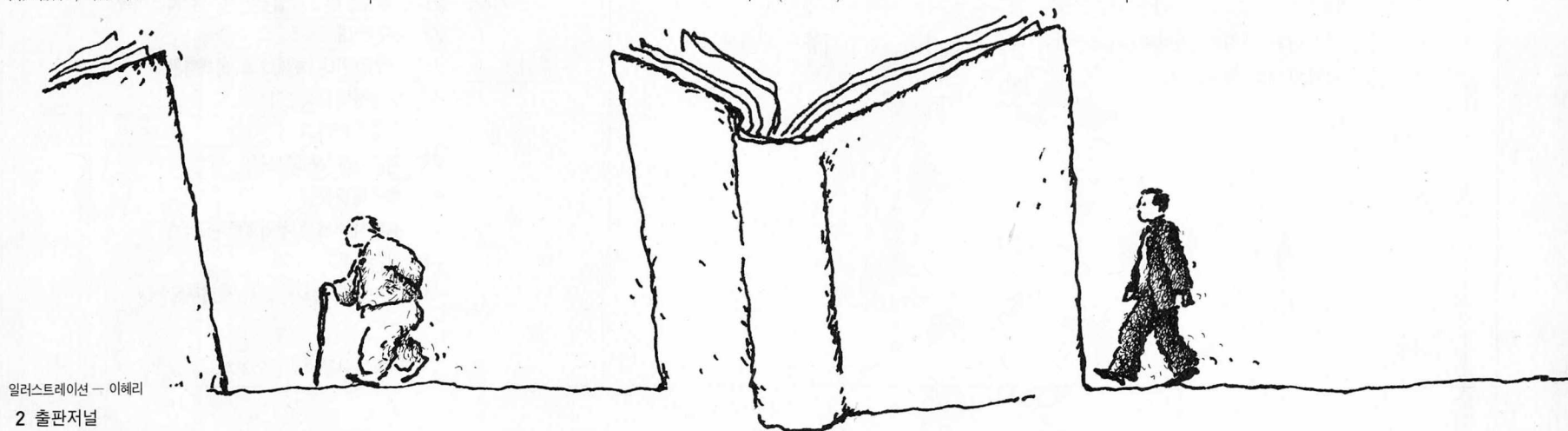
나의 앞에서 모든 것이 무지개처럼 찬연하고 모든 아름다움이 나의 사랑의 옷을 입고 아롱져 빛나기를.

양식들이여!  
. 나는 너희들을 고대하고 있다.

양식들이여!  
나의 굶주림은 도중에서 머무르지 않으리라.

만족되지 않고서는 부르짖음을 그치지 않으리라.

우리들도 그것을 억누를 수 없으리라. 금욕으로서 내가 기를 수 있었던 것은 뉘 밖에 없었다.



일러스트레이션 — 이혜리

지금 다시 대충 읽어보니 옛날같은 감동이 물론 없고, 어느 편이냐 하면 「지상의 양식」은 사춘기 소설이라고 해야할 것 같다.

이 소설을 읽기 전, 그러니까 고1때 나는 '고해'가 하기 싫어서 우리가 다니던 藥峴성당 부제신부를 찾아가 고해하기 싫은 까닭을 얘기하고, 식구들의 힐책-내가 大罪를 짓는다는-을 무릅쓰고 냉담을 했는데(천주교에서는 천주교를 떠나는 것을 냉담한다고 한다) 종교를 떠난 허전함을 물밀듯한 감동의 전율과 충족감으로 메꾸어준 게 문학과 예술이었다. 「로열 발레」라는 영국의 무용영화를 보고 육체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는 얘기를 여러번 했으니 생략하거나, 영화(특히 서부영화)·음악에서 얻은 양식도 아주 큰 것이었고, 또 문학작품으로 「싯달타」같은 것은 너무 성스러운 책처럼 여겨져서였는지 꼭 낮에 텅빈 명동성당에 가지고 들어가 앉아서 읽곤 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노릇이지만 그때는 하여간 그랬던 것이다.

그리하여 대학 1학년 때 코를 박고 읽은 보들레르의 「裸心」(李桓 역, 1959년 陽文社)도 위의 지드의 소설이 주는 은총과 비슷한 것이었으려나 가령 "나라면 이렇게 말하리라-사랑의 유일한 그지없는 일락은 악을 행한다는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그리하여 남녀를 불문하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는 것이다-모든 일락은 악에 있다는 것을."같은 말에 왜 쾌재를 부르지 않았겠는가!

물론 李光洙의 「흙」이라든지 충무공의 「亂中日記」 또는 「白凡逸志」 따위의 책을 읽고 한동안 민족주의적인 감정에 물들어 농촌계몽운동도 가고 또 고등학교 때

국사선생님이나 국어선생님 등이 장차 세울 민족학교에 더불어 참여하기로 하는 등 예술과 무관한 쪽에도 마음을 썼지만, 하여간 고대 희랍에 대해 머나멀고 신비하며 이지랭이 피어오르듯하는 동경을 갖게 된 것은 그 무렵 아마 桂鎔默이라는 사람이 편역한 영성한 발췌본 「희랍신화」를 읽고 나서였던 것 같다. 그 뒤로 趙義高 저 「희랍신화」가 사진을 곁들인 문고본으로 나왔고 마침내 乙酉文化社에서 세계문학전집의 하나로 완역본이 나왔지만, 대학 초급학년 때 희랍신화의 최초의 기록이라고 말해지는 호머의 서사시 「일리아드」를 읽으면서 조그만 노트에 노트해 놓은 게 한장 있어서 보니까 우선 올림포스神들의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에 반한 것으로 보인다. 올림포스의 신들은 그들이 신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사람과 똑같은 神人들인데, 이 점은 나중에 생긴 어떤 종교들이 약속하는 구원보다도 한결 '실질적'으로(문학의 효과가 늘 그렇듯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희랍인들은 신들을 자기들 모습대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사람의 사람스러운 점들(우리가 흔히 악덕이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을 말하자면 格上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재미로, 노트해 놓은 걸 우선 몇 개 적어 본다. (신에 관한 것도 있고 영웅에 관한 것도 있다)

▲아킬레스도 브리세이스(아킬레스가 사랑한 여자)를 떠나보내며 울었다.

▲부부싸움을 하는 신들-제우스와 헤라. (아킬레스의 어머니 테티스의 간청으로) 아들 헤파이스토스가 중재역할.

▲아테네 여신-아테네 신이 땡그렁거리는 금술달린 염소가죽 목도리를 달고 아카이아

종교를 떠난 허전함을 물밀듯한 감동의 전율과 충족감으로 메꾸어준 것이 바로 문학과 예술이었다. 「싯달타」 같은 작품은 너무 성스럽게 여겨져 텅빈 대낮 명동성당에서 읽곤 했다.

진중을 지나갈 때 병사의 가슴에 불뿔불굴의 투지와 용기를 불어넣다.

▲운명이란 겁장이고 용맹한이고 이 세상에 태어난 그날부터 피할 수 없는 것.

▲희랍의 신들은 능력을 분담해 가지고 있어서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다른 신들을 방문하여 도움을 청한다.

▲제우스의 사랑의 행각-익시온의 딸, 다나에, 휘리스의 딸, 알케메네, 레토, 헤라 등.

▲헤라의 거미줄에 걸린 제우스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에 대한 아킬레스의 비탄

▲늪은 절름발이 신-헤파이스토스.

▲테티스 여신을 맞이하는

케리스(헤파이스토스의 아내)의

접대-참으로 인간적인.

▲운명의 신-「이 신이 입을 외투는 사람의 피에 젖어 빨갱게 되어 있다」

▲희랍시대의 전쟁은 찬란했다. 방패, 투구, 칼, 창, 갑옷 등 전쟁기구며 衣冠을 금, 은, 주석, 청동 그리고 가죽 등으로 지어 몸에 휘휘 감고 황금의 깃술 번쩍거리며 내닫는 것이다.

▲아이디山의 제우스와 헤라의 단꿈처럼.....

▲헥토르 부인의 비애.

▲경마에 대한 네스토의 혼시.

이것은 266페이지까지의 노트인데, 신들의 사람스러움과 영웅들의 보통사람다움에 특히 감동한 것으로 보인다. 노트에 있는대로 제우스는 主神답게 여러 여자를 섭렵하는데, 그러한 사실을 아내인 헤라한테 숨기려고 하지만 번번이 들통이 나는 대목 같은 것은 아주 재미 있는 부분이다. 희랍인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신을 더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올림포스의 신들은 바로 사람(희랍인)이 만들어낸 것이요, 사람의 마음과 행동의 투영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들 여러 신들은 우리 마음의 만화경에 다름아니다. 그들의 욕망과 사랑과 복수와 싸움과 운명은 바로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다. 희랍신화의 신들은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비인간적인 신들이 그렇듯이 인간에게 겁을 주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며, 조직적인 종교들이 그렇듯이 억압적이지 않다. 앞에서 희랍의 神인들이 인간을 격상시킨다는 얘기를 했고 또 그 신화가 실질적인 구원이 된다고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인간과 신, 하늘과 땅이 닿을 길 없이 먼 것이 아니라 더불어 흥청거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